데스크 시각

'전략적 선택'을 다시 생각한다

장 필 수
정치부 부장

조기 대선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선거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이런 현상은 유독 호남에서 강하다. 연초부터 시작된 야권 대선 후보들의 호남행이 이달 들어 더 잦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같은 날 토크콘서트라는 같은 방식의 행사로 맞불을 놓는가 하면 불과 500m 거리를 두고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두 당이 그 어느 때보다 호남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정권 교체 가능성이 지금 시점보다 더 높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5년 단임제에서 비롯된 10년 정권 교체 주기설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정권을 교체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3명의 지지율 합계가 60%를 넘어선 것만 보더라도 국민의 정권 교체 열망을 짐작할 수 있다.

야권 대선 주자들이 호남을 찾아 가장 흔히 하는 말이 이순신 장군의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다.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는 말을 너무 자주 듣다 보니 이제는 진정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그러면서 호남인들은 고비마다 대한민국 정치의 물줄기를 바꿔 왔지 않았느냐고 치켜세우면서 '전략적 선택'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권 교체 기대 크지만

호남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으로 정착된 전략적 선택이란 무엇인가. 이는 사표를 막기 위해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밀어주는 투표 행태로 그동안 몰표로 나타났다. 처음 등장한 것은 2002년 3월 16일 민주당 경선 때로 가장 극적이었다. 16개 시도를 순회하는 국민 참여 경선에서 광주는 제주·울산에 이어 세 번째 순서였다. 당시 노무현 후보는 7명의 출마자 중 지지율이 10% 미만의 군소 후보에 지나지 않았다. 이인제 후보가 대세론으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었고 한화갑 후보가 제주 경선 1위를 바탕으로 텃밭인 광주에서 1위를 차지해 이인제와 양강 구도로 수도권에 입성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결과는 의외였다. 노무현 후보가 득표율 37.9%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면서 광주가 노풍의 진원지가 됐고 결국 노무현이 대선 후보가 됐다. 본선에서도 노무현에게 광주에서 95%, 전남이 93%의 몰표를 줘 16대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17대와 18대 대선에서도 호남은 정동영에게 80%, 문재인에게는 90%의 표를 줬다.

전략적 선택은 비단 대선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선 전략공천이란 한계 속에서도 안철수를 살리기 위해 윤장현을 광주시장으로 선택했고 지난해 총선에선 호남 28석 가운데 23석을 국민의당에게 밀어줘 16년 만의 여소야대와 20년 만의 원내 3당 체제라는 정치적 지각변동을 주도했다.

호남을 틀에 가둬서야

호남의 전략적 선택은 판세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미래를 보고 투표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박수를 받을 가치가 충분하다. 하지만 뒤집어 보면 호남의 정치가 항수에서 변수로 밀려 있고 주체성을 상실한 현실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차선의 카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호남 표를 얻기 위해 구축한 일종의 프레임일 수도 있다. 호남을 야권의 심장이라며 치켜세우면서 자신을 찍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며 일종의 틀 안에 가두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호남의 선택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 위험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야당의 대선 경선 룰이 결정되면서 호남 유권자들이 다시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섰다. 더불어민주당의 완전 국민경선에는 벌써 60만 명이 넘는 선거인단이 몰려 '역선택'을 놓고 유력 후보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국민의당도 100만 당원 모집을 목표로 흥행 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두 당과 후보들이 호남인에게 전략적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야권 후보 결정이 사실상 본선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어느 때보다 호남의 전략적 선택이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전략적 선택을 하는 호남의 위대한 유권자'라는 후보들의 사탕발림에 언제까지 취해 있어야만 하는가도 이제 생각해 볼 때다. 긴 안목에서 호남의 대권 주자를 키우는 것이 전략적 선택이라는 슬픈(?) 현실을 벗어나는 방법 아닐까.

은펜칼럼

'혼밥'하는 아이들

김 창 균
광주시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사

어느덧 얼었던 흙도 풀리며 눅눅한 내음으로 봄을 알리는 해토머리다. 이미 남녘에서부터 매화의 화신(花信)이 전해지니, 곧 겨우내 움츠렸던 가슴을 열고 훈풍에 기대어 꽃향기를 만끽할 때가 다가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편의점 등지에서 홀로 끼니를 때우는 초등학생들이 늘면서 학생들의 사회성과 창의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기사가 눈에 띈다.

학원 스케줄 때문에 밥 먹을 시간이 없어 컵라면 등으로 '혼밥'(혼자 먹는 밥)한다는데, 이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한정된 일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싸우는 현실을 보면 십분 이해가 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의 척도는 소비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돈에 있다는 현실 논리가 만들어 낸 슬픈 단면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 기사를 보며 예전 경험이 떠올랐다. 아이들과 봄 소풍으로 오르는 산길 곁에 노란 꽃망울을 터트린 생강나무가 있었다.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에서 "닭 죽은 건 염려 마라. 내 안 이를 테니"라고 꼬드기며 점순이가 주인공을 쓰러뜨린 숲에 핀 꽃이 바로 그 꽃이라고 알려줬더니, 아이들의 반응이 의외였다. "동백꽃은 빨간데, 이건 노랗잖아요."

소설의 배경인 강원도에 난대성 식물인 동백이 있을 리 만무한데, 알싸한 향기의 노란 동백꽃이라는 구절이 분명히 있음에도 아이들은 관상용으로 흔히 보는 빨간 동백꽃만 생각하고 있었다. 가지에서 생강 향이 나서 붙은 이름이고 열매를 짜서 머릿기름으로 사용하기에 동백나무라고도 한다고 설명했지만, 아이들의 흥미 밖이었고 산수유 꽃인 줄 알았다는 대답이 오히려 대견할 정도였다.

다양한 경험의 부족은 결국 지식의 편린(片鱗)을 이을 수 있는 종합적 사고력의 부재와도 연결된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 상황에서 마름의 딸과 소작인의 아들이라는 이분법적 구조를 뛰어 넘은 '해학'에 대한 정서 공유는 감불생심(敢不生心)이었다.

우리말글 연구에 평생을 바친 김수업 교수는 '사람'을 '삶을 앎'으로 풀이하였다. 배움이라 함은 '사람'되는 길인지라, 현실과 연계하여 삶을 고민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방향성을 탐색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더욱이 과거와 달리 지식정보의 가뭄보다는 홍수가 문제되는 현실에서는 삶과의 적합성에 기초하여 지식의 가치를 정확히 판단하고 수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단순한 지식과 기술 습득을 넘어서 인지적 측면과 비인지적 측면을 아우르는 종합적 역량을 키우는 배움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눈가리개를 하고 있어 옆을 볼 수 없는 경주마와도 같은 처지다. 끊임없는 생산과 소비를 조장하는 자본주의 시스템 아래 놓여 있다지만, 기성세대의 욕구에 갇혀 어린 시절의 풍부하던 상상력을 잃고 앞만 보고 달리는 순응형 경주마로 키워지고 있다.

눈가리개를 떼어주면 아이들은 스스로 인생을 고민하고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어차피 눈앞에 다가온 4차 산업혁명은 융합과 협업, 그리고 네트워크 시대로, 스펙보다는 직무 적합성, 다양한 사고와 경험이 중요한 시대이다. 최소한 '눈에 반짝거림이 없어지는 순간 뇌는 쇠퇴하기 시작한다.'는 경구가 시사하듯이, 배움을 질리게 만들어 내재적 욕망과 잠재적 가능성까지 억누르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점순이는 자기에게 무관심한 주인공에 대한 복수로 닭싸움을 벌이지만, 주인공은 이를 생각하지 못하고 오로지 닭싸움에만 매달린다. 경주마로 키우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 '혼밥'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지식 교육'을 강요해서는 결코 미래 사회를 책임질 인재를 키울 수 없다. 사회 시스템을 탓하기 이전에 작은 실천으로 변화를 찾아야 한다.

조만간 산 언저리에 '노란 동백꽃'이 피어날 것이다. 아이와 함께 산에 올라 알싸한 향기도 맡으며, '살금살금' 기어서 산 아래로 내려간 점순이와 '엉금엉금' 기어서 산 위로 치빼는 주인공의 현실관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이 살아있는 배움이 아닐까 생각한다. 첨언하자면, 의태어만으로도 제법 이야깃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기 고

'죽도의 날' 행사는 억지다

곽 진 오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정치학박사

세상을 살다보면 이론이 모자라거나 경위에 몰려서 궁색하고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된다. 이런 경우 결말은 상대를 비난하거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유·민주·평화 같은 용어보다는 거짓·매국·첩자와 같은 용어에 익숙한 경우도 있다. 후자의 용어에 익숙한 사람들의 모임인 이른바 '죽도의 날' 행사가 일본 시마네현에서 올해도 개최된다.

이 행사는 1905년 2월 22일 일본이 독도를 강제로 일본영토로 편입한 날로부터 100년이 되던 해인 2005년에 1905년 2월 22일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었다. 이후 매년 2월 22일이 되면 일본 시마네현 현청이 있는 마쓰에시에서는 이른바'죽도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 올해로 12회째가 된다.

행사 시작되기 하루 전부터 일본 각지에서 모여든 고성능 확성기를 장착한 우익 선전차가 마쓰에 시내를 누비며 "독도를 되찾아야한다", "한국인은 독도에서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다음날에 있을 이른바 '죽도의 날'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시민들에게 호소한다.

그리고 행사 당일에는 마쓰에 시내에 있는 시마네 현민회관에서 약 500여명의 정관계 우익인사들이 모여 행사를 개최한다. 주요 참석자는 각 정당을 대표해서 참석한 국회의원 약 10여명, 정부파견 차관보급 1명(2014년 이후 참석), 시마네현 지사, 시마네현 의회 의장 및 의원, 그리고 시마네현 오키군 군수 등이다.

행사는 1·2부로 나눠서 진행되는데 1부에서는 정부관련 주요 참석인사가 내빈인사 차원에서 한일관계와 독도관련 소신발언이 약 40여 분 이어진다. 이때 연사 가운데 혐한·반한 발언자에게는 함성과 박수가 쏟아지지만, 한일관계개선 또는 평화·민주·자유를 언급하는 연사에게는 여지없이 매국노, 죽어라, 한국의 첩자인가 등의 야유가 쏟아지면서 행사장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기도 한다.

이후 행사장 내 분위기는 한층 고조되고 같은 시각 행사장 밖에서는 우익 선전차들이 확성기에 전전일본군가와 일왕에 충성하는 만세삼창, 그리고 한국에 대해 온갖 욕설로 이른바 '죽도의 날' 행사는 안과 밖이 증오로 얼룩진 그들만의 잔치가 절정에 이른다.

1부 기념식 행사가 1시간 정도로 마무리되면 곧바로 2부 행사가 시작된다. 2부 행사는 주로 강연과 토론식으로 진행되는데 두 명의 독도 또는 한국 관련 연구자가 행사장 무대에 나와서 시국에 관해서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의 주요내용은 한국 비하와 독도영유권주장이다. 토론자들은 '한국이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일본이 한국에 당한다. 일본정부는 독도를 되찾기 위해 한국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일본정부는 현재 시마네현이 주관하고 있는 행사를 내년부터는 중앙정부가 주관하는 행사로 승격시켜야 한다' 고 얘기하면서 행사참가자들로부터 박수를 유도해내기도 한다.

이른바'죽도의 날' 행사는 시작과 끝이 한결같다. 행사장 안과 밖에서는 증오와 폭력이 난무한다. 행사장 안은 반한을 조장하는 열기로 가득하고 밖은 경찰과 우익참가자와의 몸싸움만 두 시간 동안 진행된다. '죽도의 날' 행사 그 어디에도 시민은 없다. 심지어는 구경꾼도 거의 볼 수 없다. 그래서 '죽도의 날' 행사는 거짓이고 억지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 說

특검 연장 반대는 진상 은폐 기도 아닌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식 수사 기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검은 지난 60여 일 동안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국정 농단, '블랙리스트' 의혹 등 굵직한 사건 수사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시간에 쫓겨 손대지 못하거나 제대로 밝히지 못한 사건들도 아직 많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을 둘러싼 이른바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삼성을 제외하고는 SK와 롯데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박 대통령과 최 씨 측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파헤쳐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특검팀 역시 지난 16일 "특검법에 따른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를 모두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제출했다. 특검법은 1차 수사 기한을 총 70일로 정하고, 기한 내에 수사를 끝내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한 차례에 한해 30일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 연장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 승인권을 가진 황 권한대행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특검 연장을 당론으로 반대하면서 제동을 걸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 카드를 써서 국회에서 특검 연장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 법안을 무력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국정 농단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여권이 적폐 청산의 길을 막고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국민의 70% 이상이 특검 연장을 원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정부 여당은 이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송정역 이용객 급증 시설 확충은 언제 되나

고속철도(KTX) 호남선 개통에 이어 수서고속철도(SRT) 연결로 광주송정역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 역사 증축과 편의시설 확충 등이 절실하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KTX가 개통한 2015년부터 SRT 개통 직전까지 1일 평균 이용객 1만3615명에서 SRT 개통 이후 1만 7195명으로 26.3%가 급증했다.

문제는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지만 광주송정역 대합실 면적과 차량 주차면수는 이용객 수가 비슷한 울산역의 60%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광주송정역 대합실은 1775㎡, 울산역은 2883㎡다. 주차면수는 광주송정역이 597면, 울산역은 1044면이다. 이러니 이용객의 불만은 당연하다.

광주송정역은 사업비 241억 원을 들여 2013년에 착공, 2015년 3월에 준공됐다. 지하 1층에 지상 4층 규모로 애초 대합실 면적과 주차 규모가 1105㎡와 390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신축 역사의 규모가 짐작이 간다. 광주송정역이 이처럼 비좁은 역이 된 것은 지난 2008년 교통영향평가 당시 송정역 이용 수요만 반영했기 때문이다.

당시 1일 이용객이 6446명으로 분석됐던 광주역 수요가 빠지면서 결국 비좁은 역사와 편의시설이 들어선 것이다. 게다가 민자유치로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추진되면서 애초 6층 규모의 역사를 4층으로 축소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국민의당과 정책간담회에서 송정역 증축을 시정 주요 현안으로 보고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한다.

수도권과 광주를 오가는 이용객이 1000만 명(올해 1월말)을 돌파해 접근성의 걸림돌이었던 '거리 장벽'이 사라져 본격적인 고속철도 시대를 맞았다. 따라서 광주시는 서울·경기권의 주민을 지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날리지 말고 하루빨리 송정역 증축을 통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필사(筆寫)

"…심장이/ 하늘에서 땅까지/ 아찔한 진자 운동을 계속하였다/ 첫사랑이었다." 김인육 시인의 시 '사랑의 물리학' 일부다. 지난해 12월 방영된 tvN 드라마 '도깨비' 4화에서 공유가 자신에게 달려오는 김고은을 보며 이 시를 읽는다. 드라마에서 공유가 들고 있던 시집은 PPL(간접광고)로 등장했다. '섬진강 시인'으로 불리는 김용택(69) 시인이 엮은 필사(筆寫) 시집 '어쩌면 별들이 너의 슬픔을 가져갈지도 몰라'였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반향은 뜨거웠다. 이 시집은 전파를 탄 이튿날부터 두 달간 베스트셀러 1위 자리를 고수했다. 방송 전인 2015년 6월에 출간돼 이미 5만 부가 팔렸는데, 방송 후에는 가속도가 붙어 2월 5일 현재 67쇄를 찍을 정도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이러한 독자들의 반응에 시집을 엮은 시인조차 놀랐다. 김용택 시인은 최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전혀 느닷없는 일로 나도, 출판사도 전혀 상상을 못했다"고 말했다. 이 시집에는 모두 111편의 시가 실려 있다. 시인이 엄선한 시 101편과 독자들이 뽑은 시인의 시 10편으로 구성돼 있다. 이 시집의 특징은 왼쪽 페이지에 시가 실려 있는 데 비해 오른쪽 페이지는 여백이라는 점이다. 독자들이 좋은 시를 읽고, 손글씨로 직접 한 자, 한 자 따라 써 보라는 의도다.

시인은 필사 시집을 엮은 까닭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못사는 것도 굶는 것도 아닌데 사는 게 힘들다고 그런다. '남의 시를 필사해 보면 어떨까', 시가 헤매는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필사 바람이 불고 있다. 시와 소설 속 명문장을 옮겨 쓰는 책 출간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더욱이 정치 상황은 불투명한 데다 사회정의는 흔들리고, 경제 상황마저 낙관하기 힘든 때다. 필사 시집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그만큼 서민들의 삶이 각박해지고 감성마저 피폐해졌다는 반증일 것이다.

독자들은 시구를 옮겨 쓰며 상처 입은 감성을 스스로 치유한다. 시 한 편을 필사해 본다. "신선한 공기, 빛나는 태양/ 맑은 물, 그리고/ 친구들의 사랑/ 이것만 있다면 낙심하지 마라."(괴테, '용기' 전문)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